

# 한국창조과학회의 창조과학교육 분석

---

**박광현**

(효암고등학교, 영어강사, 기독교교육학)

- I. 들어가는 말
- II. 창조과학운동의 역사와 배경
- III. 창조과학교육에서 '창조'와 '과학'의 의미
- IV. 창조과학교육의 교육목적,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 V. 창조과학교육의 의의
- VI. 나가는 말

**[초록]**

이 글의 연구 목적은 한국창조과학회(Korea Association for Creation Research, KACR)의 창조과학교육을 분석하는 것이다. 한국창조과학회는 1970년 미국에서 창조과학연구소(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 ICR)를 세운 헨리 모리스(Henry M. Morris)의 도움으로 1981년에 설립되었다. 한국창조과학회는 지난 40년 동안 한국교회와 성도들 뿐 아니라 사회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하였다. 한국창조과학회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약 1,3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교육자이기에 설립 초기부터 다음 세대와 성도들의 창조신앙 형성을 위한 창조과학교육에 집중해 왔다. 한국창조과학회는 창조신앙의 형성, 창조의 변증을 통한 진화론 반대, 공교육에서의 창조론 교육의 시도, 창조에 근거한 과학교육 책자와 자료 제작, 창조에 근거한 과학 학술연구, 과학을 통한 복음의 제시 등 다양한 창조과학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개혁주의 기독교교육의 관점에서 한국 창조과학회의 교육 활동을 분석하는 것이다. 먼저 한국창조과학회의 배경과 역사를 살펴본 후, 한국창조과학회의 창조과학교육에서 ‘창조’와 ‘과학’의 의미를 분석할 것이다. 이런 분석을 기반으로 한국창조과학회의 창조과학교육의 교육목적,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어서 창조과학교육의 의의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 글은 개혁주의 기독교교육의 관점에서 한국창조과학회의 창조과학교육의 교육적 의의와 가치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키워드:** 한국창조과학회, 창조, 과학, 교육, 진화, 창조신앙

논문투고일 2022.06.02. / 심사완료일 2022.08.22. / 게재확정일 2022.09.07.

## 1. 들어가는 말<sup>1</sup>

다윈의 진화론이 19세기 중반에 대두된 이래로 진화론은 학문과 문화를 포함한 공적 영역의 주된 세계관으로 자리 잡았다. 과학의 옷을 입은 진화론의 확장에 대해 교회와 신학자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을 때 크리스천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창조를 과학으로 변증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 창조과학운동이다.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창조에 대한 변증은 당연히 신학자들이 몫이었다. 그러나 17세기 과학혁명 이후 과학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우주와 생명의 기원을 다루는 기원과학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게 되었다. 19세기에 대두된 다윈의 진화론이 기원과학에서 열쇠와 같은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중세 이후 서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었던 성경의 창조 사상은 종교와 사적 영역 안으로 점차 국한되었다. 과학이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게 되면서 교회와 신학의 사회적 영향력 또한 감소하였다. 진화의 관점에서 우주와 인류의 기원을 설명하는 과학자들의 주장에 대해 교회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진화론은 학문, 문화, 교육을 포함한 사회의 공적 영역을 주도하는 세계관으로 자리 잡았다. 창조과학운동은 진화론의 영향력이 확장되던 20세기 중반 헨리 모리스(Henry M. Morris)를 중심으로 미국의 크리스천 과학자들이 성경의 창조를 과학으로 변증하여 기독교의 창조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 시작되었다.

과학이 발전하기 이전에는 기독교의 창조와 기원에 대한 변증이 신학으로 충분하였지만, 오늘날에는 과학의 옷을 입은 진화론자들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반증하기 위해서는 신학적 지식뿐 아니라 과학적 지식도 필요하다. 창조과학의 독특성은 신학을 기반으로 과학적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오늘날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창조를 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창조과학회에서 실시하는 창조과학교육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앞으로 기독교공동체가 발전시켜야 할 신학적 과학 또는 과학적 신학의 기초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과학의 시대에는 신학과 과학이 함께 연구하고 대응해야

<sup>1</sup> 한국창조과학회의 역사와 현황에 대한 자료 제공과 본 글의 초고를 검토해 주신 한국창조과학회 임원들께 감사를 표한다.

할 영역이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창조과학의 창조과학교육 분석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본 글의 연구 목적은 한국창조과학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창조과학교육을 개혁주의 기독교교육학적 관점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먼저 한국창조과학회가 설립된 배경과 역사를 살펴보고, 창조과학회가 실시하는 창조과학교육에서 ‘창조’와 ‘과학’의 의미를 알아볼 것이다. 이어서 한국창조과학회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활동과 문헌들을 통해 창조과학교육의 교육목적,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창조과학교육의 의의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주된 연구 방법은 문헌분석이 될 것이다. 한국창조과학회와 그 회원들의 글을 비롯한 출판물과 한국창조과학회의 홈페이지를 기본 자료로 하고, 연구논문을 비롯한 관련 문헌을 참조할 것이다. 창조과학이 미국에서 시작되어 한국의 창조과학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연구 분량의 제한으로 한국창조과학회의 창조과학교육에 한정하고자 한다.

## II. 창조과학운동의 역사와 배경

창조과학적 사고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에 속했던 독일의 지질학자 프라이스(George McCready Price, 1870-1963)로부터 시작되었다. 프라이스는 지질학 연구 결과물을 『새로운 지질학』(*The New Geology*)이라는 이름으로 1923년에 발표하였다. 그는 이 책에서 창세기의 첫 부분에 대한 문자적 해석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6,000-8,000년 전에 창조하셨으며, 지구의 지질학적 과거는 성경의 대홍수와 관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짧은 지구와 노아 홍수에 의한 격변설을 담은 프라이스의 『홍수지질학』(*Flood Geology*)은 지질학자인 클라크(Harold W. Clark, 1891-1986), 고생물학자인 버딕(Clifford Burdick, 1919-2005) 등의 지지를 받았으며, 루터교 신학자인 넬슨(Byron Nelson), 미국의 침례교 교인이며 지질학자인 버지니아 공대의 석좌교수였던 헨리 모리스(Henry M. Morris, 1918-2006) 등으로 이어졌다. 모리스는 프라

이스가 속한 안식교의 교리는 수용하지 않았으나 자신이 창조과학에 눈을 뜬 데에는 프라이스의 공헌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모리스가 본격적으로 창조과학 운동에 몰두하기 전 미국에는 1941년에 결성된 보수적 크리스천 과학자들로 구성된 미국 과학 연맹(American Scientific Affiliation, ASA)이 있었다. ASA에서 잠시 활동했던 모리스는 은혜 형제 교단인 그레이스 신학교의 신학자 존 휘트콤(John C. Whitcom, Jr.)과 함께 『창세기 대홍수』(*Genesis Flood*)를 1961년에 발간하였다. 이 책은 프라이스 저작의 현대판으로 휘트콤의 신학적 기여와 모리스의 과학적 전문지식을 통해 프라이스의 논점을 좀 더 정교하게 제시한 책이었다. 이 책에서 휘트콤과 모리스는 현대 지질학의 동일과정설(uniformitarianism)<sup>2</sup>의 입장을 격변론의 관점에서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이 책의 핵심적인 부분인 지질학의 격변론과 과학적 해석을 맡았던 모리스는 이 책으로 말미암아 창조과학운동의 핵심적인 인물로 부각되었다.<sup>3</sup>

모리스는 생화학자 듀안 기쉬(Duane Gish, UC Berkley, 1921-2013)와 신학자 존 휘트콤(John C. Witcomb, 1924-2020)과 함께 창조연구회(Creation Research Society, 1963)를 설립해 국제적인 창조과학 활동을 주도했다. 60여 명의 연구원으로 구성된 미국창조연구소(ICR, 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 1972)는 창조과학 이론의 개발과 창조과학의 교육기관으로 “창세기로 돌아가자”(Back to the Genesis)는 운동을 전개하며, 기관지를 통해 창조과학자료를 제공하였다. 헨리 모리스와 휘트콤이 공저한 『창세기 대홍수』(*Genesis Flood*)는 복음주의 진영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sup>4</sup>

미국에서 전개된 창조과학운동은 ‘1980 세계복음화 대성회’ 기간 듀안 기쉬와 스티브 오스틴 등과 함께 방문한 헨리 모리스에 의해 한국에 전해지게 되었다.

2 동일과정설(uniformitarianism)은 현재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 현상이 과거는 물론 미래에도 동일한 과정과 속도로 일어난다는 가설이다. 동일과정설은 현재 지구의 모습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매우 긴 지구의 역사가 요구된다는 주장으로 격변론을 반대한다. 네이버 지식백과(www.naver.com, 지질학백과).

3 조덕영, “종교사회학 관점에서 바라본 창조과학”, (2018, 한국종교사회학회 학술대회), 2. 한국종교사회학회가 2018년 1월 6일 경희대 청운관에서 “과학과 종교, 그리고 공공성: 개신교와 창조과학”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창조신학연구소 조덕영 소장이 발표한 글에서 인용.

4 임변삼, “한국창조과학운동의 태동”, (2018), (사)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str.or.kr) 임변삼 칼럼.

세계복음화 대성회 기간 중 ‘창조냐 진화냐’에 대한 4일간(8.12-8.15)의 세미나에 학생, 과학자, 목회자, 일반인 등 4천여 명이 참석하였다. 많은 사람이 기원 문제에 관심이 크다는 것을 확인한 25명의 크리스천 과학자들은 간담회를 갖고 창조과학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조직을 만들기로 결의한다. 한국의 창조과학회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김영길 박사를 중심으로 1981년 1월 31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발족되었다.<sup>5</sup> 한국창조과학회의 출범은 과학과 신앙의 양립에 고민하던 많은 기독교인과 일반인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공교육에서 진화론을 과학적 사실로 배워 진화론적 사고에 익숙해져 있던 많은 사람에게 크리스천 과학자의 창조과학을 통한 창조론 전파는 교계와 학계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한국창조과학회 창립 전후로 매스컴들은 한국창조과학회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보도하며 사회적 관심을 더욱 확산시켰다. 정회원 57명, 준회원 43명, 특별회원 17명, 총 117명으로 출발한 한국창조과학회는 10주년이 지나면서 약 1천 명의 회원으로 성장했고, 1990년 교육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정식 등록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sup>6</sup> 2016년까지 온라인 회원의 수가 약 3만2천 명이었으나, 그 이후 온라인 회원을 운영하지 않고 모든 자료를 오픈하기 시작했다. 2021년을 기준으로 학술대회와 오프라인 행사에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지부와 본부 회원의 수는 약 1,300명으로 추산된다.<sup>7</sup>

한국대학생선교회(Campus Crusade for Christ)의 총재였던 김준곤 목사의 적극적 후원과 한국교회의 보수적인 성향으로 창조과학운동은 한국적 풍토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한국창조과학회는 학술 단체와 같은 성격의 이름을 가졌으나 학술연구보다는 집회, 교육, 창조-진화 논쟁과 같은 대중적 운동에 치중하였다. 1990년대 기독교계 일간지인 순복음 교단의 국민일보의 창간과 더불어 기독교 언론의 지원과 주목을 받고 한국교회의 호응을 불러일으킨 한국창조과학회는 많은 회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sup>8</sup>

2022년 창립 41주년을 맞이한 한국창조과학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5 김영애, “한국창조과학회 40년의 시작”, 「창조」 제207호 (2021), 42.

6 김영길·조덕영, “한국에서의 창조론 운동의 회고와 전망”, 「창조」 제100호 (1996), 11-12.

7 한국창조과학회 임원들이 2022년 2월 필자에게 제공한 미간행 자료를 기반으로 기술됨.

8 조덕영, “종교사회학 관점에서 바라본 창조과학”, 3.

에 대한 돌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학회 사역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을 목표로 창조과학을 소개하기 위해 창립 초부터 출판해온 학회의 활동을 알리는 분기별 소식지 '창조'를 전면 디지털로 전환하였으며, 새롭게 시작한 학술지인 *ORJ*(Origin Research Journal)를 온라인으로 발간하기 시작하였다.<sup>9</sup>

### Ⅲ. 창조과학교육에서 '창조'와 '과학'의 의미

창조과학은 '창조'와 '과학'이라는 두 단어가 결합된 합성어이다. 성경에서 '창조'는 창조주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으로 우주와 만물의 시작을 인간에게 드러내어 보여주는 단어이다. 이에 비해 '과학'은 근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인간의 합리적 이성애 근거한 학문적 의미를 지닌 자연과학을 지칭하는 말이다. 창조과학은 하나님의 계시적 성격을 지닌 '창조'와 인간의 이성적 학문 활동의 '과학'이 결합된 말이다. 즉 창조과학은 반증 불가능한 '창조'와 반증 가능한 '과학'이라는 단어가 만나 계시와 이성, 하나님과 인간, 영원과 시간 등의 상반된 두 측면이 결합된 합성어로 이해할 수 있다. '창조'는 주로 신학의 영역에서 다루어져 왔으나, 과학의 발전 특히 기원과학의 발전과 함께 창조과학이 20세기 중반에 등장하였다. '창조과학'은 계시적 영역의 '창조'와 이성적 영역의 '과학'의 교집합을 다루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영역에 대한 연구로 볼 수 있다. 창조과학이 가진 이러한 미묘한 성격으로 말미암아 그 정체성에 대해 신학계와 과학계 양측으로부터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으로의 시대는 신학과 과학이 함께 연구하고 대응해야 할 교집합과 같은 분야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창조과학교육은 계시적 측면의 창조중심 교육, 이성적 측면의 과학 중심 교육, 그리고 창조와 과학의 통합과 균형을

<sup>9</sup> 한국창조과학회 홈페이지(<http://www.creation.kr>), (2022년 2월 15일 접속). 한국창조과학회의 창조과학교육에 대하여 기독교교육학의 관점에서 연구한 자료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창조과학회의 홈페이지 및 미간행 자료들을 부득이 많이 활용하여 글을 쓰게 되었다.

추구하는 통합 교육 등으로 세분화하여 이해할 수 있다.

## 1. 창조과학교육의 ‘창조’ 이해

신학 노선에 따라 성경해석의 스펙트럼이 다양하듯이 창조에 관한 이해 또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성경해석에 대한 신학적 노선은 근본주의, 복음주의, 개혁주의, 신정통주의, 자유주의 등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창조과학에서 ‘창조’의 의미는 창조과학회가 어떤 신학 노선에 기반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창조과학의 ‘창조’ 이해는 성경, 특히 창세기의 해석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한국창조과학회가 고백하는 ‘창조과학신앙고백문’을 통해 이 단체가 가지고 있는 ‘창조’의 의미를 살펴보자.

살아계신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모든 존재의 유일한 원천이시고, 하나님으로서 동일한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을 가지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계심을 믿는다(렘 10:10; 신 6:4; 고전 8:4,6; 롬 11:36; 마 3:16,17; 28:19; 고후 13:14; 요일 5:7, 살전 1:3,4). ……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권능과 지혜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천지 만물을 무에서 창조하셨음을 믿는다(창 1:1-31; 롬 1:20; 히 11:3). 하나님께서 우주 안에 있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옛세 동안에 창조하셨으며(창 1:1-31),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음을 믿는다(골 1:16; 행 17:24).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음을 믿으며(창 1:21,24-25), 진화론과 수십억 년의 진화론적 시간 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으며, 이성적이며 불멸하는 영혼을 주시고, 지식과 의와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음을 믿으며(창 1:26-27; 2:7; 전 12:7; 마 10:28; 눅 23:43; 엡 4:24; 골 3:10), 아담 이전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롬 5:12; 고전 15:22).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옛세 동안의 창조, 에덴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죄의 형벌, 단 한 번의 전 지구적 심판인 노아 홍수, 바벨탑의 배도 등과 같은 기록들은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사실임을 믿는다(창 1:1-31; 3:1-24; 6-9장; 11장; 마 24:37-39; 눅



17:26-29). …… 한국창조과학회는 성경의 진리와 함께 초대교회의 보편신앙인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경(AD 325, 381), 칼케돈 신경(AD 451년)을 받으며, 정통교회에서 역사적으로 고백해온 사도신경과 성경과 창조에 관한 신조들을 받는다.<sup>10</sup>

한국창조과학회의 ‘창조과학신앙고백문’은 큰 틀에서 복음적인 한국교회의 신앙고백과 많은 부분 일치하지만, 특이한 것은 창조와 관련된 여러 문장이 신앙고백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창조과학신앙고백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서부터 성경의 영감과 무오성, 무로부터의 창조, 생물 종류대로의 창조, 진화론과 ‘오랜지구론’의 부정,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아담 이전의 죽음 부정, 문자적 6일 창조, 노아 홍수에 의한 ‘단일격변설’(대홍수설), 구약 사건들의 역사성,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종말의 날 만물의 회복에 대한 신앙고백으로 이어진다. 한국창조과학회의 ‘창조과학신앙고백문’에서 독특한 것은 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창조와 관련된 내용을 신조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가운데 두드러진 것은 문자적 6일 동안의 창조를 지지하는 ‘젊은지구론’과 노아 홍수에 의한 ‘단일격변설’이다. ‘젊은지구론’을 신조로 고백하는 것은 창조과학을 처음으로 제시한 프라이스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프라이스는 창세기에 대한 문자적 해석으로 천지창조의 날이 지금의 하루에 해당하는 24시간과 동일하며, 지구의 나이는 6,000년에서 8,000년 사이가 된다고 주장했다. ‘단일격변설’ 또한 프라이스가 주장했던 이론으로 단 한 차례의 홍수로 인해 지구상의 대부분의 지층과 화석이 형성되었으며, 대부분의 지표면의 모습이 결정되었다는 주장이다.

한국창조과학회의 ‘창조과학신앙고백문’에 나타나는 무로부터의 창조, 생물 종류대로의 창조, 구약 사건들의 역사성, 만물의 회복 등은 대부분의 보수적인 한국교회의 창조 이해와 일치한다. 그러나 6일 동안의 창조를 ‘젊은지구론’으로, 노아 홍수를 ‘단일격변설’로 확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남아있

10 한국창조과학회 홈페이지(<http://www.creation.kr>), (2022년 2월 15일 접속).

다. 신학계 안에서도 창세기의 창조의 '날'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한다. 보수적인 신학 노선에 있는 신학자들 가운데에서도 '오랜지구론'을 지지하는 학자들이 있다. 일반 과학계에서 '젊은지구론'은 전반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가설이다. 한국창조과학회는 단 한 번의 전 지구적인 노아의 홍수로 인해 지구의 지층이 형성되었다는 '단일격변설'을 주장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지구에서 발견되는 큰 운석과의 충돌 흔적과 지질학적 연구를 통해 '단일격변설'보다는 '다중격변설'에 의한 창조의 가능성을 주장한다.

한국창조과학회가 '젊은지구론'과 '단일격변설'을 '창조과학신앙고백문'에서 신앙으로 고백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개인과 단체와는 배타적이고 분리주의적 자세를 취하는 것은 창조과학회가 기반하고 있는 신학의 성향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성경의 창조에 대해 거의 모든 건전한 개신교 교단에서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부분과 함께 세부적으로 교단과 신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로부터의 창조',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한 창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사랑에 의한 창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창조' 등은 개혁주의 창조론의 핵심적인 주장으로 여러 교단의 교회도 함께 고백하는 창조 신앙의 내용이다. 그러나 창세기의 창조 사건을 '젊은지구론'과 '단일격변설'로 단정하고 이를 창조신앙으로 고백하는 교단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창조의 '날'에 대해서는 교단과 신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종교개혁자 칼빈(John Calvin, 1509-1564)은 창조의 기간에 대해 문자적 6일 동안의 창조를 지지하였고, 이에 비해 아프리카 히포의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Aurelius Augustinus, 354-430)는 창조가 단번에 이루어졌다고 이해했다. 창조는 인간 역사 이전에 발생한 계시적 사건으로 성경만이 그것을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창세기에서 창조의 과정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으나 많은 부분이 신비에 싸여 있다. 따라서 특정한 과학이론을 창조의 방법과 과정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함이 요구되며, 더 적합한 이론이 등장할 수 있으므로 연구자들은 새로운 이론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유연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창조과학회의 '창조과학신앙고백문'은 특정한 과학 이론들을 포함하고

있기에 창조 사건에 대한 신학적 과학적 논의의 폭을 스스로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창조과학회가 그들의 신조와 다른 주장을 하는 개인과 단체와 단절하는 태도는 신학계로부터는 근본주의에 근거한 단체라는 비난을 받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창조과학회가 창조 논의에 있어서 ‘젊은지구론’과 ‘단일격변설’과 같은 비본질적인 부분을 ‘창조과학신앙고백문’ 안에 포함하여 이것을 창조신앙의 본질적인 것으로 만들었고, 그 결과 그들과 다른 주장을 하면 진화론자 또는 타협론자로 취급하는 분리주의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의 단체가 되었다.

양승훈은 근본주의 신학이 사고가 단순한 과학자와 공학자들의 손에서 더욱 전투적으로 다듬어진 것이 현재의 창조과학이라고 평가한다. 그는 창조과학의 문제는 신학, 과학철학, 과학사를 공부한 인문학 분야의 학자들이 참여하지 않고 과학자와 공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그는 창조와 진화와 같이 신앙적이고 이념적 함의가 강하게 내재된 분야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신학적 소양이 필요한데, 신학적 훈련을 받지 못한 과학자들은 자신의 과학적 주장이 어떤 신학적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양승훈은 창조과학자들이 성경해석에서 문자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자신들은 성경 문자주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근본주의적 주장을 하면서도 자신들은 근본주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서 이들의 신학적 소양이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난다고 비판한다.<sup>11</sup>

양승훈은 『다중격변 창조론』에서 창조과학회에서 지지하는 ‘젊은지구론’은 틀렸을 가능성이 높으며, 오히려 ‘오랜지구론’이 과학적 근거가 높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지구에서 노아 홍수 이외에도 다양한 격변의 사건들이 있었다는 ‘다중격변론’을 제시하였다. 양승훈은 여전히 창조론을 지지하는 학자이다. 그는 생물의 기원을 논하면서 화학진화, 생물진화, 인간진화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평가하며, 지구는 오랜 기간에 걸쳐 창조되었다는 다중격변설을 지지한다. 그는 지구상의 생물들이 대격변 사이의 긴 기간 때마다 대규모로 창조되었고, 그 중의 얼마는 멸종했으며, 인간은 가장 마지막에 창조되었다고 본다. 그는 창조의 긴 기간을 상정하지만 진화를 인정하지 않고 각기 종류대로 만들어

11 양승훈, “양승훈 한국창조과학회 떠난 4가지 이유”, (www.newsm.com), 5.

진 창조에 의해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오래된 지구론’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이다.<sup>12</sup>

양승훈은 『대폭발과 우주의 창조』의 서문에서 1981년부터 시작한 창조과학 연구를 통해 그의 관점이 ‘젊은지구론’에서 ‘오래지구론’과 ‘다중격변설’로 점차 바뀌었다고 말한다.

다중격변설은 노아의 홍수 이전, 특히 창조주간에 지구에 여러 차례 대격변들이 있었으며, 노아의 홍수는 그들 중 마지막 적 지구적인 격변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창조로 말미암은 인류의 시작은 6천 년 내지 20만 년 전이라는 유연한 입장을 취했으며, 지구와 우주의 창조연대는 현대 지구과학이나 우주론에서 제시하는 연대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지질학적으로 다중격변창조론을, 창세기 해석에서는 날-시대 이론을, 생물창조와 관련해서는 진행적 창조론을, 창조연대와 관련해서는 오랜지구론을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창조과학 운동의 흑백논리적이고 전투적 특성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러한 전환은 쉽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sup>13</sup>

양승훈은 창조과학을 전개하기 위한 자신의 신학적 관점이 성경에서 현대 과학적 의미를 찾으려고 시도하는 근본주의적 입장에서 복음주의적 성경관으로 바뀌었다고 말한다. 그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원리는 시대와 역사와 문화를 초월하지만,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세계상은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 사람들의 상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의 물리학, 우주론, 천문학, 생리학, 지리학 등의 상식을 사용해 구원의 도리를 말씀하셨다”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성경의 특정 단어나 표현으로부터 과도하게 현대 과학적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양승훈은 창조과학이 근본주의적 관점으로 지나친 문자적 해석의 방식으로 성경에서 과학적 의미를 찾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sup>14</sup>

한국창조과학회는 양승훈의 이러한 주장은 ‘점진적 창조론’의 변형으로서

12 이윤석, “한국의 창조론 논의 현황”, 『창조론 오픈 포럼』 14/1 (2020), 47-63.

13 양승훈, 『대폭발과 우주의 창조』 (서울: SFC출판부, 2016), 20.

14 양승훈, 『창조에서 홍수까지』 (서울: 도서출판 CUP, 2014), 16.

전형적인 타협이론으로 간주하며, “아담 이전에도 창조와 죽음이 있었다”는 그의 주장을 비판한다. 한국창조과학회는 양승훈이 하나님의 설계에 의한 완벽하고 성숙한 일회적 창조가 아니라, 대격변 사이의 긴 기간 때마다 창조가 일어났다는 ‘오래된 지구론’을 바탕으로 하는 생물학적 진화론을 창세기에 기록된 성경적 창조론과 타협하는 주장을 한다고 비판한다. 한국창조과학회는 “대격변 사이의 긴 기간 때마다 창조가 일어났다”는 양승훈의 주장에 대한 과학적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박한다.<sup>15</sup>

개혁신학의 관점에서 창조과학의 신학적 문제를 다룬 윤철민은 창조과학의 문제는 성경해석과 관련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미국의 창조과학연구회가 근본주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세대주의 종말론 등과 관련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성경에 관한 문자적 해석이 과학의 옷을 입은 것이 창조과학”이라고 비판한다.<sup>16</sup> 김정형은 창조과학자들의 주장과 관련해서 더 심각하게 생각되는 문제는 그들의 과학적 오류보다 그들의 신학적 오류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창조과학이 그릇된 성경해석을 근거로 성경적 창조신앙을 왜곡시켜 소개하면서 현대 과학과 정당성 없는 전투를 치르고 있다”고 비판한다.<sup>17</sup> 김명용은 『과학시대의 창조론』에서 창조과학회를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창조과학회는 근본주의 신학과 상당 부분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적 문제에 대한 해석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킨다. 때로는 과학적으로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과학이론까지 근본주의적 성경 이해로 뒤엎으려고 시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창조과학회가 지성인들과 학자들 사이에 신뢰를 잃게 된 핵심적인 이유는 성경의 과학을 오늘에 적용하려는 무리한 시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근본주의 신학은 성경의 과학이 고대인의 과학이라는 것을 결코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근본주의 신학에 바탕을 둔 창조과학 역시 성경의 과학을 오늘의 과학 속에 뿌리내리려고 시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시도는 이제 거의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sup>18</sup>

15 김병훈·한윤봉, 『성경적 창조론이 답이다』, 79-86.

16 윤철민, 『개혁신학 Vs 창조과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8), 35-36.

17 김정형, “과학적 무신론의 도전과 창조론의 미래” 『선교와 신학』 48 (2019), 114-115.

18 김명용, 『과학시대의 창조론』 (서울: 온신학 아카데미, 2020), 63.

한국창조과학회는 신학계에서 위와 같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창조과학회는 창조과학이 기반하고 있는 근본주의적 신학적 성향과 창조과학신앙고백문의 내용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한국창조과학회는 복음적인 기독교공동체 안에서 창조론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좀 더 유연한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창조과학회는 공식 홈페이지(www.creation.kr)의 ‘한국창조과학회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항목에서 위에서 제기된 비판들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먼저 “한국창조과학회는 안식교에서 출발하지 않았으며, 프라이어 박사의 학문적 업적만을 인정할 뿐 안식교의 종말론과 구원론과 같은 교리는 결코 따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한국창조과학회와 해외의 창조과학 단체들을 정통 기독교 순수 복음주의 초교파 학술 단체”로 소개한다. 한국창조과학회가 근본주의적 성경해석을 추구한다는 비판에 대해 “한국창조과학회는 극단적 문자주의를 따르지 않으며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의 권위와 무오성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한국창조과학회는 “예수님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신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을 기록된 말씀대로 믿을 뿐, 모든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sup>19</sup> 또한 한국창조과학회는 이 단체가 과학자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회원으로 함께 활동하고 있기에 양승훈이 제기한 “신학적 소양이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주장을 반박한다.<sup>20</sup>

## 2. 창조과학교육의 ‘과학’ 이해

창조과학교육의 과학 이해에 대해 살펴보자. 한국창조과학회는 홈페이지의 첫 부분에서 창조과학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sup>19</sup> 한국창조과학회 홈페이지(http://www.creation.kr), (2022년 2월 15일 접속).

<sup>20</sup> 한국창조과학회 임원들이 2022년 2월 필자에게 제공한 미간행 자료를 기반으로 기술됨.

창조과학의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을 변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진화론 교육과 과학주의로 인해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사회적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도구를 통해 창조를 변증하는 일이 더욱 중요시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만유를 창조하셔서 (히 11:3) 창조의 원리나 과정은 초과학적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유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롬 1:20) 우리는 이 세계의 생명, 환경, 조건들을 관찰함으로써 과학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변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창조신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포함한 성경 전체에 대한 우리 믿음의 근간입니다.<sup>21</sup>

한국창조과학회는 이 시대가 진화론 교육과 과학주의로 인해 창조신앙을 부인하게 만드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과학을 통해 창조를 변증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고 분석한다. 창조과학은 창조가 초과학적 사건임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인다”(롬 1:20)는 말씀을 인용하여 이 세계를 과학적 방법으로 관찰하여 창조를 변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진화론을 추종하는 과학자들이 우주와 생명체의 우연적인 자연 발생을 전제로 진화가 과학적으로 적합하다고 주장하듯이, 창조과학회는 창조를 전제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지질학, 의학, 생명공학, 화학공학, 재료공학, 기계공학, 전자공학, 정보통신, 원자력공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적설계에 의한 창조가 과학적으로 사실임을 변증하는 과학적인 연구와 학문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창조과학은 인간, 생물체, 우주 등에 내재하는 질서와 조화가 우연이 아닌 지적설계의 결과라는 것을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 주장하고, 이 시대가 만물의 기원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경외하도록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sup>22</sup>

한국창조과학회는 창조가 초과학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한 창조를

21 한국창조과학회 홈페이지(<http://www.creation.kr>).

22 한국창조과학회 홈페이지(<http://www.creation.kr>).

기록한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 하지 않고,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과학적으로 사실임을 ‘변증’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창조과학은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창조가 사실임을 과학적으로 ‘변증’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창조과학은 증명된 과학 법칙과 과학적 사실들을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단지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된 오류가 많은 이론인 진화론과 타협이론들을 부정할 뿐이라고 말한다. 한국창조과학회는 유신진화론과 같은 타협이론들이 하나님의 창조행위를 왜곡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유신진화론은 창조과학이 아니라고 주장한다.<sup>23</sup>

창조과학교육에서 ‘과학’의 역할은 초월적인 창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환경과 생명에 대한 과학적 관찰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변증’하는 것이다. 진화론자들이 자신들의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 틀로 진화를 사용하듯이 창조과학자들은 창조를 과학 연구를 위한 해석의 틀로 사용하고자 한다. 창조과학은 과학 연구를 통해 드러난 미시세계의 정교함과 우주의 조화와 질서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이에 대한 지적설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거시세계와 미시세계의 지적설계자가 바로 성경을 인간에게 주신 기독교의 하나님이 되심을 과학으로 ‘변증’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창조과학교육에서 ‘과학’의 역할은 창조의 증명 이 아니라 창조에 대한 ‘변증’이라 볼 수 있다. ‘과학’의 역할은 우주, 지구, 인간, 동물과 식물 등의 모든 창조세계에 대한 자연과학적 연구를 통해 질서와 조화를 가능하게 하는 지적설계자의 흔적을 찾고, 이 지적설계자가 기독교의 창조주 하나님임을 ‘변증’하는 것이다.

#### IV. 창조과학교육의 교육목적,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 1. 교육목적과 교육목표

한국창조과학회는 창조주 하나님을 변증하는 것을 창조과학의 교육목적으로

<sup>23</sup> 한국창조과학회 홈페이지(<http://www.creation.kr>).



제시한다. 창조과학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유를 창조하셔서(히 11:3) 창조의 원리나 과정은 초과학적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유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롬 1:20) 우리는 이 세계의 생명, 환경, 조건들을 관찰함으로써 과학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변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창조과학은 하나님의 창조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창조신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포함한 성경 전체에 대한 믿음의 근간으로 이해한다. 한국창조과학회는 창조과학교육의 미션(mission)으로 창조신앙의 회복을 제시하며, 비전(vision)으로 교회를 위한 창조과학을 제시하며, 목표(goals)로 성경에 근거한 창조신앙 교육 및 연구를 제시한다.<sup>24</sup>

한국창조과학회의 목적은 인간, 생물체, 우주 등에 내재하는 질서와 조화가 우연이 아닌 지적설계의 결과라는 것을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 주장하고, 이 시대가 만물의 기원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경외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한국창조과학회의 비전은 “성경적 창조신앙”을 회복하고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sup>25</sup>

한국창조과학회는 이런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4가지 교육목표를 제시한다. 그것은 한국교회의 창조신앙 회복, 다음 세대를 위한 창조신앙 교육, 성경의 과학적 변증, 학술사역에 힘을 쏟는 것이다. 첫째, 한국교회의 창조신앙 회복이라는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창조과학 강연을 위한 전문 강사들을 양성하고 창조과학 집회와 교육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각 지부에 속해 있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교회, 대학교, 기독교 단체 등에서의 활발한 집회와 강의로 창조신앙 회복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창조과학회는 연간 약 1,000회의 창조과학 집회를 개최하여 참가자들의 창조신앙 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다. 둘째, 한국창조과학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창조신앙 회복을 위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창조과학 캠프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이들을 위한 교육자료와 책자를 만들어 제공하고

24 한국창조과학회 홈페이지(<http://www.creation.kr>).

25 한국창조과학회 홈페이지(<http://www.creation.kr>).

있다. 창조과학회는 진화가 아닌 창조의 관점에서 우주와 생명의 기원 문제를 다른 과학 교과서와 관련 서적을 개발하여 학교와 대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회의 주일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창조교육 프로그램과 강사를 지원하고 있다. 셋째, 창조과학의 교육목표인 성경의 과학적 변증을 통해 과학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복음의 접촉점으로 삼고자 한다. 성경의 과학적 변증은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성경의 사건들이 신화나 문학이 아닌 역사적으로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이었음을 확신시키며,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진화 이외의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하여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접촉점의 역할을 한다. 창조과학은 생명의 기원을 유물론과 진화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현대인에게 성경의 창조에 대한 과학적 변증을 통해 기독교적 세계관을 제시한다. 넷째, 창조과학의 교육목표는 학술 사역을 통해 창조교육의 이론적 기반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창조과학회는 여러 종류의 학술대회와 강연을 통해 과학 자료들의 객관적 비교와 검토를 통해 진화론의 모순점을 밝히고자 한다. 창조과학은 진화론으로 말미암아 왜곡된 세계관의 문제를 제기하고 창조론적인 시각에서 기원의 문제를 조명한다. 한국창조과학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모임인 ‘창조코이노니아’에서 다양한 주제 강의와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창조의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매년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열리는 ‘창조과학 학술대회’를 통해 창조과학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고 진화론의 오류를 지적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는 과학이 되도록 국제학술대회 또는 전국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창조과학회는 국제적인 학술대회로 ‘아시아창조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아시아창조학술대회’는 아시아 지역의 창조과학자들이 함께 모여 연구논문과 창조과학 사역을 소개하고 발표하는 국제학술대회로 3년마다 개최지를 한국과 일본과 말레이시아 순으로 번갈아 가며 개최하고 있다. 한국창조과학회는 학술 사역의 일환으로 전문학술지인 *Origin Research Journal* (ORJ)을 발행하고 있다. ORJ는 성경적 틀 안에서 과학적, 신학적 연구 성과와 성경적 창조신앙의 해석을 출판하기 위한 전문학술지이다.<sup>26</sup>

---

26 한국창조과학회 홈페이지(<http://www.creation.kr>).

## 2. 교육내용

한국창조과학회의 창조과학교육에서 제시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공하는 교육내용은 다양하다. 창조과학교육에는 창조를 좀 더 비중 있게 다루는 창조 중심 교육, 과학을 좀 더 비중 있게 다루는 과학 중심 교육, 그리고 창조와 과학의 균형을 추구하는 통합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창조과학교육에서 창조 중심 교육의 주제는 기독교, 성경, 창조신앙 등이다. 특히 창조와 관련된 성경의 본문은 가장 중요한 교육내용이다. 창조과학은 성경의 창조를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는 근본주의적 성향이 있으므로 문자적 6일 창조에 의한 ‘젊은지구론’과 노아 홍수에 의한 ‘단일격변설’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교육내용이다. 창조과학은 노아 홍수 사건 전과 후의 지구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성경에 기초한 과학적 설명을 제시한다. 또한 창조과학은 성경에 등장하는 사건들을 역사적 사실로 이해하며, 교육내용으로 창조와 관련된 성경의 본문에 대한 과학적 해석을 다룬다.

두 번째로 과학 중심 교육에서는 자연과학의 다양한 학문을 중요한 교육내용으로 간주한다. 먼저 지구와 생명의 기원 연구에서 중요한 분야인 화석을 다루는 지질학과 우주의 탄생과 기원을 다루는 천문학은 중요한 교육내용으로 간주된다. 지질학과 관련하여 지구의 연대 문제는 비중 있게 다루어진다. 한국창조과학회가 ‘젊은지구론’을 신조로 고백하듯이 지구의 연대 문제는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지구와 생명의 기원에 있어서 생물학 역시 중요한 교육내용이다. 일반 생물학에서 다루지는 진화론은 창조과학교육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다. 창조과학교육은 생명의 기원이 진화가 아니라 창조에 의한 것임을 변증하는 학문이므로 성경적 창조의 변증은 진화의 부정과 관련된다. 창조과학교육은 자연의 관찰을 통해 창조자가 있음을 변증하는 동시에 진화론에 모순되는 지질학적, 생물학적, 물리학적 증거들을 주요한 교육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로 창조과학의 통합교육에서는 지적설계가 비중 있게 다루어진다. 지적설계는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과학 연구에서 우주와 생명체를 설계한

신이 요청됨을 인정하는 교회 밖의 과학자들과 일반인들도 공감할 수 있는 이론이다. 지적설계 이론은 창조자 없이는 우주와 생명의 기원을 설명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학문적 연구를 통해 창조를 설계하신 조물주의 손길을 변증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창조과학의 교육내용을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과학 교과 교육과정에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다. 현직교사들인 장슬기의 3인은 공교육에서 가르치는 지구과학, 생물학, 물리학의 영역에 맞게 창조교육에서 다룰 수 있는 교육내용으로 재구성하는 시도를 하였다. 먼저 지구과학에서는 화석의 증거들, 창세기 대홍수, 노아 홍수와 단일격변론, 지구과학과 설계 등의 단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생물학에서는 자연발생설과 화학진화론, 진화하는 진화론, 생물학적 관점에서 진화의 가능성, 인류의 기원 논쟁, 지적설계로 본 생물 등의 단원으로 구성하였다. 물리학에서는 열역학과 생명의 기원, 과학적 연대 논쟁, 지적설계로 본 물리 등의 단원으로 구성하였다.<sup>27</sup> 창조과학의 교육내용이 다양하므로 교육자의 교육목표에 맞춰 교육내용을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창조과학회의 교육내용은 학교의 커리큘럼처럼 일목요연하게 제시된 것이 아니기에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교육내용은 창조과학회에서 출판하고 홍보하는 책자들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미국과 한국의 창조과학회 회원들이 저술하거나 번역한 책들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한국창조과학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책들의 제목을 중심으로 창조과학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교육내용의 주제들을 살펴보자. 한국창조과학회 홈페이지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차세대 배너와 일반인을 위한 배너를 구분하여 책 검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2년 2월을 기준으로 한국창조과학회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서적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 【차세대를 위한 서적】

『구석구석 지구탐험』, 『어린이를 위한 창조과학 이야기1·2』, 『과학실험 큐티』, 『재미있는 공룡 큐티』, 『하나님과 만나는 100일 과학 큐티』, 『숨겨진

27 장슬기 외 3인, 『창조론 탐구학습』 (서울: 좋은씨앗, 2010).

공룡의 비밀』, 『파커 박사님 화석이 뭐예요?』, 『빙하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들어봤니1·2·3(공룡)』, 『창조과학 만화교실1·2』, 『1318 창조과학 A to Z』, 『성경적 창조론1·2』, 『창조과학백과 공룡』, 『창조과학백과 인체』, 『한 컷만화 창조과학 100』, 『교과서 속 진화론 바로잡기』, 『십대들의 물음표 하나님의 느낌표』, 『ASK 공부법』<sup>28</sup>

#### 【일반인을 위한 서적】

『창조와 섭리』, 『과학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창조 진화 지적설계에 대한 4가지 견해』, 『성경에서 찾은 지구 나이』, 『지으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적 창조론이 답이다』, 『궁금해? 궁금해!』, 『유신진화론 비판』, 『창조 진화 지적설계 쉽게 이해하기』, 『생명의 진화에 관한 8가지 질문』, 『창조 연대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진화는 가고 설계가 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깊도다, 그의 지혜의 부요함이어』, 『자연과학과 기원』, 『종교가 되어버린 진화라는 상상(한국어판·중국어판)』, 『창조 맞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유신진화론』, 『과학자의 눈으로 본 창세기』, 『빅뱅과 5차원 우주 창조론』, 『설해문자에 나타난 창세기』, 『지명속에 숨겨진 창세기』, 『동식물의 수학적 설계, 성경에게 신앙을 묻다』, 『창조인가 우연인가』,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진화론에는 진화가 없다』, 『신트로피 드라마』, 『고대 한자 속에 감추어진 창세기 이야기』, 『노아 홍수 콘서트』, 『우주와 인간의 시작』, 『정확 무오한 성경』, 『빙하시대 이야기』,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의 원역사』, 『3가지 진리 9가지 사실』, 『진화론의 아킬레스건』, 『언디나이어블: 생물학이 확인해주는 생물설계 직관』, 『옛새 동안에: 6일 창조의 증거들』<sup>29</sup>

다음 세대를 위한 서적은 창조과학을 소개하는 것에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창조과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과학과 공룡을 주제로 한 큐티 책 3종류와 만화와 과학백과사전 형식으로 구성된 책들도 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을 반박하는 내용의 책과 청소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과 공부법을 소개하는 책도 보인다. 일반인을 위한 서적은 다음 세대를

28 한국창조과학회 홈페이지(<http://www.creation.kr>).

29 한국창조과학회 홈페이지(<http://www.creation.kr>).

위한 서적보다 종류가 훨씬 다양하다. 성경, 창조, 지적설계, 진화, 자연과학, 지구 나이, 창조연대, 수학적 설계, 생물설계, 유신 진화론, 기원, 빅뱅, 노아 홍수, 6일 창조, 설해 문자 등의 주제어가 보인다. 창조과학에서 비중 있게 다루는 '젊은지구론'과 '단일격변론'과 관련된 책들도 볼 수 있다. 한국창조과학회에서 홍보하고 판매하는 이런 서적을 통해 창조과학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교육내용이 무엇인지 개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한국창조과학회 홈페이지의 창조과학 세미나 신청 코너에 제시되는 세미나 주제들을 살펴보면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교육내용을 또한 살펴볼 수 있다. 창조과학 세미나 신청자는 아래의 주제들 가운데 원하는 강좌를 선택할 수 있다.

창조신앙의 중요성, 진화는 사실인가?, 생명의 신비 설계일까 우연일까?, 지층과 화석, 창세기 대홍수, 인체의 신비, 공룡과 창조, 지구와 우주의 신비, 창조와 복음, 대홍수와 그랜드캐니언, 격변과 창조, 창세기의 난제들, 우주와 창조,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측정, 창조와 다양성, 교과서 진화론 다시 보기, 지적설계, 현대진화론의 문제점, 성경과 고고학, 창조주 하나님, 질서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엄청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 대홍수와 방주의 비밀, 으름 창조물 공룡, 돌보시는 하나님, 너는 특별해<sup>30</sup>

한국창조과학회에서 제공하는 창조과학 세미나의 주제어는 창조, 진화, 생명, 화석, 지층, 지적설계, 고고학, 대홍수, 방주, 공룡, 우주, 복음, 인체, 질서, 다양성, 교과서, 연대측정, 그랜드캐니언 등이다. 수강자들의 연령대와 흥미를 고려한 다양한 주제의 교육내용이 제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3. 교육방법

한국창조과학회가 창조과학교육을 위해 활용하는 교육방법은 집회와 세미나 등의 강의식 수업방식, 문서와 출판물, 과학 캠프와 수련회, UCC 대회, 언론과

30 한국창조과학회 홈페이지(<http://www.creation.kr>).

미디어의 활용 등을 꼽을 수 있다.

첫째, 창조과학교육을 위해 가장 빈번히 활용하는 교육방법은 강의식 수업방식이다. 교회, 단체, 대학교에서 창조신앙 형성을 위해 집회와 세미나와 같은 강의식 방식을 많이 활용한다. 한국창조과학회가 소식지 「창조」의 발간과 언론을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창조과학 초청 집회와 세미나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런 현상은 한국창조과학회의 설립 이념이 한국교회의 보수적인 신앙의 성격과 잘 어울리기에 전국의 교회에서 창조과학 집회를 요청하면서 일어났다. 교회뿐 아니라 기독교 단체, 직장 신우회, 대학교에서도 창조과학 집회와 심포지엄이 열렸다. 일반적인 집회와 강의 방식은 한국창조과학회에 소속된 전문 강사가 한국창조과학회나 본인이 제작한 ppt 자료를 활용하여 진행하는 것이다. 강사들은 글, 사진, 동영상 등의 자료들을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강의의 흥미를 높인다. 한국창조과학회는 다양한 종류의 창조과학 슬라이드를 제작하여 전국의 창조과학 강사들에게 강의를 위한 기본 자료로 보급하고 있다. 강사들은 자신들의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 깊이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여 강의에 임한다. 한국창조과학회는 전국에서 연간 약 1,000회의 가장 많은 집회와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는 초교파적 기독교 단체로 인정받을 만큼 백 명에 가까운 창조과학 강사들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창조과학회의 전국적인 활동은 지부가 설립되면서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81년에 대전 충남, 대구 경북 지부를 시작으로, 1982년에 전북, 전남, 부산, 미주 지부가 설립되었다. 이어서 경남, 강원, 이스라엘, 충북, 울산, 창원, 일본, 포항, 원주, 제주, 공주, 천안 지부 등이 차례로 설립되었다. 해당 지역 회원들의 자발적이고도 전폭적인 헌신으로 전국의 교회, 대학, 기독교 단체에서 창조과학 집회와 세미나가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다.<sup>31</sup>

한국창조과학회는 홈페이지에서 창조과학 세미나를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코너를 구성해 놓았다. 신청자는 수강자들의 연령대(유치/초등생, 청소년, 청년/대학생, 일반/장년)에 따라 원하는 주제를 선택할 수 있다. 한국창조과학회는 수강자들의 나이, 인원, 행사명, 강의 장소에 적합하게 강의 내용과 방법을

31 김영길·조덕영, “한국에서의 창조론 운동의 회고와 전망”, 11-12.

준비한다. 또한 신청자는 수강하는 교회나 단체의 상황에 따라 강의 차수를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다. 이와같이 한국창조과학회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창조과학 세미나 신청 방법에서 수강자들을 배려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창조과학회에서 연 1,000회의 세미나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신청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수강자의 연령대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수업을 설계하는 것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창조과학회는 창조과학교육을 위한 교육방법으로 문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초기 창조과학 운동의 확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것은 문서 선교였다. 창립 초기 자체의 연구자료가 없었던 한국창조과학회는 미국의 창조과학 자료들을 번역하여 『진화는 과학적 사실인가?』를 출판했다. 이 책은 창조과학을 소개하는데 큰 역할을 하며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창조과학회의 문서 선교의 시발이 되었다. 창조과학회의 문서 선교는 1989년 창조과학회 출판부 인가로 이어졌고, 지난 40년 동안 수십 권의 단행본을 발행하였다. 여러 권의 책들이 베스트셀러로 꾸준히 사랑받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 창조론적 관점에서 서술한 자연과학 서적은 신학교뿐 아니라, 명지대, 우석대, 고신대, 경희대 등에서 교양과정의 교재로 채택되었다. 1994년 발간된 『진화론과 과학』은 국내에서 발간된 진화론 비판 서적 가운데 깊이 있는 책으로 신앙인들뿐 아니라 진화론자들에게도 참고 도서로 활용되었다. 또한 한국창조과학회는 지성적인 현대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전도의 방안으로 창조과학의 관점에서 제작한 전도용 소책자와 간증집을 출간하였다. 1981년부터 발행한 창조과학회의 활동을 알리는 소식지인 「창조」를 발행하여 전국의 개인, 단체, 교회에 보냄으로써 창조과학 운동을 널리 알리고 있다.<sup>32</sup>

한국창조과학회는 1990년에 교육부의 고등학교 2종 교과서용 도서 검정공고에 따라 (주)계몽사와 함께 과학 교과서를 집필하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창조론적 관점을 배제하고 진화론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교과서를 수정하라는 지시로 검정 불합격 결정을 내린다. 이에 창조과학회는 1990년 2월 5일에 서울고등법

32 김영길·조덕영, “한국에서의 창조론 운동의 회고와 전망”, 11-12.



원에서 “검증 불합격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심리한다. 이 과학 교과서에 대한 소송은 끝내 기각되었지만, 이 일을 계기로 일반 대중들에게 창조론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고, 기독교계는 오랜만에 일치된 목소리로 교과서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결정에 반론과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 소송은 진화론을 고수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의지가 얼마나 견고한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창조과학회는 창조론적 관점에서 서술된 교과서에 담으려고 했던 진화론의 문제점을 다룬 『진화론의 실상』이라는 책을 계몽사를 통해 출판하게 된다.

한국창조과학회는 창조과학교육을 위한 교육방법으로 출판물과 자료를 활용하여 관심 있는 창조과학 분야를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한국창조과학회 홈페이지는 창조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 한국창조과학회 홈페이지([www.creation.kr](http://www.creation.kr))는 창조과학교육과 관련된 많은 문서 자료와 동영상 강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창조과학 관련 서적을 쉽게 검색하여 구매할 수 있게 하여 창조과학을 자기주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온라인 학교와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창조과학회는 전문적인 창조과학 학술지인 *Origin Research Journal(ORJ)*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창조과학회는 시대의 변화에 맞게 *ORJ*와 「창조」를 e-book 형태로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셋째, 창조과학교육의 활동적인 교육방법으로 어린이, 청소년, 청년을 대상으로 창조과학 캠프를 주기적으로 개최한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약 일주일 동안의 집중적인 창조과학 캠프를 개최하여 창조과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창조신앙을 형성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한국창조과학회는 캠프와 유사한 방식으로 창조과학 강사를 교회의 주일학교에 파견하여 주일날 교회에서 창조과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넷째, 한국창조과학회는 창조과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방법으로 창조과학 UCC 경연대회를 활용한다. 창조과학을 배우거나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이 그룹을 구성하여 약 5분 분량의 단편 영화와 같은 콘텐츠를 만드는 UCC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학습자들이 창조과학을 좀 더 깊게 생각하고 표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창조과학회는 참가자들이

수동적인 학습자에 머물지 않도록 창조과학 관련 콘텐츠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여 학습한 내용을 내면화하고 심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 이런 교육방법은 학습자 주도의 구성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법이며, 미디어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데 익숙한 젊은 세대에 적합한 방법이다.

다섯째, 한국창조과학회는 창조론 논의의 사회적 확산과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교육방법으로 신문과 방송 등의 언론과 미디어를 활용한다. 한국창조과학회는 기독교계 안에서의 활동에 안주하지 않고, 창조론 논의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1985년 미국창조연구소(ICR) 부소장 기쉬 박사가 방한하여 서울대, 과기대, 경북대, 영남대 등에서 연속적으로 창조론 집회를 개최하여 국내 과학계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1988년 4월 3일에는 국내 최초로 ‘창조냐 진화냐’의 주제로 텔레비전 심포지엄이 공영방송인 KBS 3TV에서 개최되기에 이르렀다. 창조론을 지지하는 세 명의 참가자들은 진화론을 지지하는 세 명의 교수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토론은 기독교인뿐 아니라 일반인에게까지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1991년에는 국내 최대의 과학 대중잡지 「과학동아」에서 창조론과 진화론을 같은 비중으로 다룬 기원 논쟁을 7월호 특집으로 게재하게 된다. 이 논쟁을 통해 독자들의 상당한 관심을 확인한 출판사는 8월호와 10월호에 거듭해서 양측의 논쟁을 신기도 하였다. 「과학동아」는 1995년 1월호에 다시 한번 창조론과 진화론 양측의 주장을 게재하였다. 한국창조과학회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신문, 방송, 과학잡지 등에서 적극적으로 창조과학을 알리는 활동으로 창조론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과학계가 생명의 기원 논쟁에서 과거와는 달리 창조론을 무시할 수 없음을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sup>33</sup>

여섯째, 과학을 통한 복음의 전파는 창조과학교육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인 교육방법이다. 한국창조과학회의 집회, 강의, 캠프, 세미나, 문서, 방송 등의 다양한 활동의 목적은 창조과학을 활용한 창조신앙의 회복과 복음 전파에 있다. 창조과학회는 무신론적 진화론이 학계와 문화를 주도하는 사회적

33 김영길·조덕영, “한국에서의 창조론 운동의 회고와 전망”, 11-12.

환경에서 성경에 나타나는 창조, 홍수, 바벨탑 등의 사건이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임을 과학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함으로써 청중들이 진화론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창조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쓴다. 진화론에 근거한 공교육으로 말미암아 진화론적 사고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과학을 통해 복음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다. 현대인들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진화론적 사고가 심리적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창조과학을 통해 진화론적 세계관을 깨트리는 전략은 현대인의 전도에서 매우 실효성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유물론적 공산주의 교육을 받고 자라난 중국과 북한을 포함한 공산권의 사람들에게 과학을 활용한 복음의 전파는 더욱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화론과 유물론에 사로잡혀 있는 현대의 사람들에게 과학을 통한 창조의 제시는 그들의 유물론적 세계관의 한계를 볼 수 있게 하는 훌륭한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창조과학교육의 목표인 창조과학을 통한 복음의 전파는 한국창조과학회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실천되고 있다.

## V. 창조과학교육의 의의

한국창조과학회는 일차적으로 학술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설립 초기부터 교육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다. 그것은 이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약 1,300명의 회원 상당수가 과학자이며 동시에 교수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창조과학회는 지난 40년 동안 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해 창조과학을 알려왔고, 창조과학을 통해 기독교의 창조를 변증하고 있다. 한국창조과학회의 창조과학교육의 교육적 의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한국의 공교육이 진화론에 근거한 교육으로 시민의 의식과 문화를 진화 편향적으로 조성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한국창조과학회는 이에 굴하지 않고 창조과학교육을 통해 창조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하였으며, 우주와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진화론 이외에 창조론이 있음을 사회에 각인시켰다. 한국창조과학회는 한국 공교육의 진화론 중심의 과학교육에 제동을 걸었다.

진화론만을 과학적 사실로 인정하고 가르치는 교육적 상황에서 창조론 역시 과학교육의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법정 재판 까지 가는 열정과 노력을 보여주었다. 창조과학회의 소송은 기각되어 수용되지 않았지만,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창조론 중심의 과학교재와 출판물의 제작은 다음 세대의 창조교육을 위해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창조론 중심의 과학 교과서와 출판물은 기독교 대학, 미션스쿨, 기독교 대안학교, 교회, 가정 등의 기독교공동체에서 창조신앙 교육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교과서의 개발과 보급은 진정한 기독교학교 교육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므로 한국창조과학회에서의 과학 교과서와 관련 서적들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은 기독교공동체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한국창조과학회는 창조신앙의 형성을 돕는 다양한 교육 활동을 기획하고 제공하였다. 교회와 기독교 단체와 대학교에서의 집회와 강연,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수련회와 창조과학 캠프, 출판물과 자료의 제작과 보급, 언론과 미디어 홍보 등의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 진화론적 문화에 물든 성도들과 학생들에게 창조신앙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한국창조과학회는 창조과학 강의와 서적을 통해 성경에 나타나는 사건들의 역사성과 과학적 합리성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를 통해 창조신앙을 더욱 고취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창조과학은 성경의 사건들이 과학적 합리성과 거리가 먼 종교와 신앙의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며 동시에 과학을 통해 변증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창조과학교육은 과학과 진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창조과학은 과학이라는 매개체로 창조와 진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과학과 신학이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진화론적 과학주의가 더욱 팽배해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기독교는 진화론과 과학주의의 도전에 대해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응답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기독교공동체는 한국창조과학회의 지난 40년 동안의 활동과 연구자료를 참고하여 과학과 진화론에 대한 바른 이해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과학과 진화론

에 대한 바른 이해는 기독교공동체의 창조교육을 위한 기본 전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종교와 과학, 신학과 과학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과 더 나아가서는 '신학적 과학' 또는 '과학적 신학'의 정립과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한국창조과학회는 건전한 신학적 기반에 과학적 전문성을 결합한 '신학적 과학'을 발전시켜 오늘날의 시대에 더욱 설득력 있고 공감이 되는 창조에 대한 변증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창조과학회는 지난 40년 동안의 역사를 통해 기독교적 학문 연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였고 그 길을 제시하고 있다. 학문의 해석 원리로 진화론이 공적으로 인정받는 환경에서 창조과학은 기독교세계관적 안목으로 과학을 이해하고 진정한 과학적 해석 원리로 진화가 아니라 창조를 제시한다. 창조과학의 이런 주장은 기독교적 학문 연구를 세워나가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한국창조과학회는 지난날 성경에서 발생한 사건들의 역사성과 진실성을 변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학을 활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기독교세계관적 안목으로 과학연구를 수행하는 진정한 기독교적 학문 연구를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창조과학의 당면 과제는 창조과학이 성경의 창조를 보여주는 과학적 사례를 제시하는 과학이라는 좁은 의미를 넘어, 성경과 창조에 근거한 학문 연구를 수행하는 과학이라는 넓은 의미로 확장하는 것이다. 창조과학은 기존 과학계보다 더 정합적인 이론을 만들어 하나님의 계시인 창조를 과학자의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창조과학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본 믿음으로 삼는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진정한 기독교적 학문을 보여줘야 한다.<sup>34</sup> 한국창조과학회에 소속된 과학자들은 지난 40년 동안 그들의 창조과학 관련 의견을 학술 논문의 형식보다는 주로 강의, 에세이, 출판물 등의 형태로 제시해 왔다. 진화론과 유신진화론을 지지하는 학술 논문의 숫자에 비해 창조를 지지하는 창조과학자들의 학술 논문이 현저히 적은 사실은 한국창조과학회가 과학계의 공적 영역에서 학술적인 노력이 부족했던 모습을 보여준다.<sup>35</sup>

34 이경직, "기독교 세계관과 창조과학", 「신앙과 학문」(제11권 2호, 2006)

35 이윤석, "한국의 창조론 논의 현황", 47-63.

다섯째, 기독교교육의 관점에서 지난 40년간 계속된 창조과학교육의 지속성, 교육목표의 명확성,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의 다양성, 학습자 중심의 창조과학 세미나, 다음 세대 창조신앙 형성을 위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방법 등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 한국창조과학회의 교육철학과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은 교회를 포함한 기독교공동체의 창조교육을 위해서도 의미 있는 통찰과 구체적인 교육의 실재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창조과학회가 창립 초기부터 성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한 창조신앙형성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다양한 교육 활동을 전개해 온 것은 한국 기독교공동체의 형성과 유지에 있어서 교육의 중요성과 역할을 잘 보여주고 있다.

## VI. 나가는 말

창조과학은 진화론의 확장과 기원과학에 대한 크리스천 과학자들의 선구적인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창조과학의 출현은 19세기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진화론의 확장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20세기 중반 미국의 과학자들로부터 시작하였다. 19세기 중반부터 급속하게 확장되는 진화론에 대해 교계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을 때, 크리스천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진화론을 반박하고 창조를 과학적으로 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조과학회가 설립되었다. 진화론이 거의 모든 과학 분야의 핵심적인 해석 원리로 인정되고, 학문과 문화를 주도하는 공적 세계관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창조신앙을 가진 과학자들과 기독교공동체는 위기감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회적, 교회적 상황은 창조과학이 비교적 단기간에 급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한국창조과학회는 1981년에 창립되어, 80년대에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 남을 만한 창조론 열풍을 일으켰다. 90년대에는 언론과 매스컴의 관심을 받으며 창조와 진화 논쟁을 통해 창조를 한국 사회에 알렸다. 또한 공교육의 진화론 일변도의 과학교육을 비판하며 창조론도 학교에서 가르쳐야 함을 주장하였다. 한국창조과학회는 지난 40년 동안 집회, 세미나, 출판, 방송, 캠프 등의 다양한

창조과학교육으로 과학을 통한 창조의 변증을 위해 노력하였고, 한국의 교회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다.<sup>36</sup> 한국창조과학회의 활동에 대해 교계에서 호의적으로 평가가 많지만, 창조과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신학계 뿐 아니라 과학계에서도 들려온다. 한국창조과학회는 정당한 비판에 대해서는 숙고해보는 자세로 창조과학의 발전과 성숙을 도모할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중세의 사회에서 종교가 지배적인 역할을 하였다면, 현대는 과학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학과 진화론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이에 대한 기독교의 대응이 절실히 요청된다. 창조과학자들은 신학자들보다 한발 앞서 진화를 창조와 특정한 신학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오늘날 한국의 신학계와 교회 안에 유신진화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창조과학회는 합동신학대학원과 연합하여 신학자들과 크리스천 과학자들이 유신진화론과 같은 타협이론을 수용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건강한 성경적 창조신앙으로 한국 교회와 다음 세대를 굳건하게 세우고자 노력하고 있다. 기독교공동체는 한국창조과학회의 지난 40년의 역사와 창조과학교육을 기독교 공동의 자산으로 여길 필요가 있으며, 이를 되짚어보면서 무신론적 진화론의 공격에 대한 기독교적 대응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21세기의 기독교 창조론은 과학과 진화론에 대한 논의를 피하기 어렵다. 신학은 신학적 진리로서 창조론에 대한 합리적 논의에서 비롯되는 과학적 논의와 이에 담긴 메시지를 놓고 성경과 개혁신학에 근거해서 이를 신학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sup>37</sup> 교회와 신학은 공교육과 문화를 통해 더욱 확장되고 공교해지는 진화론적 세계관에 대해 침묵할 수 없다. 이러한 기독교의 위기 상황을 창조론과 진화론의 조화를 통해 벗어나고자 하는 유신진화론이 기독교공동체 안에서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숙고해보아야 한다. 신학은 시대가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 가르침에 충실하면서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적절하고 균형 잡힌 답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sup>38</sup>

한국창조과학회는 창조신앙을 기독교 신앙과 세계관의 근간이며 출발점으로

36 양승훈, “창조론 교육,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교육교회』 (1993. 6), 93.

37 이신열, 『창조와 섭리』 (부산: 고신대학교 출판부, 2021), 385.

38 이신열, 『창조와 섭리』, 385.

보고 있기에 창조신앙의 형성과 계승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따라서 창조과학교육과 기독교세계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조성국은 기독교교육의 방향에 대한 논의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을 부정하는 유물론, 인본주의, 자본주의, 기술주의적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이런 세속적 세계관들의 전제와 방향을 검토하고 비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독교세계관적 접근방식의 필요성을 제시한다.<sup>39</sup> 창조과학은 진화론에 기반한 과학주의와 기술주의 세계관을 창조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평가하여 성도들과 다음 세대가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도구이다. 또한 기독교세계관의 출발은 창조이므로 창조과학교육은 창조신앙과 기독교세계관 형성에 유용한 교육적 도구가 될 수 있다.

창조과학이 기독교공동체의 지지와 공감을 더욱 얻기 위해서는 그것이 기반하는 신학적 토대를 근본주의에서 복음주의나 개혁주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칼빈의 창조론은 오늘날 기독교세계관 논의에서 중요한 개념들과 원리를 제공하는 샘과 같은 역할을 한다.<sup>40</sup>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와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sup>41</sup>는 칼빈의 신학을 계승하여

39 조성국·이현민, 『기독교 세계관과 교육이론』 (서울: 생명의 양식, 2021), 361-62.

40 Susan Schreiner, *The Theater of His Glory* (Michigan: Baker Books, 1995). 이 책에서 창조, 타락, 구속, 회복으로 이어지는 칼빈 창조론의 기독교세계관적 전망을 잘 볼 수 있다. 슈라이너는 칼빈의 창조론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 천사, 자연과 자연 질서, 하나님의 형상, 역사와 사회, 성도의 삶, 우주론적 구원과 회복 등의 주제들을 다룬다. 도에베르트가 전개한 개혁주의 철학의 세계법 양상 이론의 기반이 되는 창조의 법과 질서에 관한 개념 그리고 기독교세계관 논의에서 중요한 책으로 평가되는 알버트 월터스의 『창조 타락 구속』(*Creation Regained*)에서 핵심적인 원리로 제시되는 창조의 구조와 방향에 대한 개념들도 칼빈의 창조론에 이미 나타나고 있음을 이 책에서 볼 수 있다. 현대의 기독교세계관 논의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개념들과 원리가 칼빈의 창조론에서 이미 씨앗처럼 심겨 있음을 알게 된다. 바빙크, 도에베르트, 야르스마 등의 개혁주의 사상가들은 칼빈의 창조론을 충실하게 발전시켜 왔다.

41 바빙크는 칼빈에서 시작된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계승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켰다. 그는 다윈의 진화론이 확장되고 과학이 급속하게 발전하던 19세기와 20세기 초의 상황에서 기독교의 창조를 변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리는 그의 여러 글에서 과학과 진화론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볼 수 있다. 바빙크는 개혁주의의 정체성 위에서 간학문적 연구를 통해 진화론자들과의 대화를 시도하였다. 그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긍정하였으며 새로운 과학적 발견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바빙크는 신학과 과학의 바른 관계에 대해 고심하였으며, 양자는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개혁주의의 정체성 위에서 사회와의 관계성 형성을 추구한 바빙크의 신학방법론은 창조교육을 위한 교육방법론의 차원에서 의미 있는 통찰을 주고 있다. Herman Bavinck,



개혁주의 신학으로 더욱 발전시켰으며, 개혁주의 철학자 헤르만 도예베르트(Herman Dooyeweerd)<sup>42</sup>는 칼빈의 사상을 기반으로 기독교 철학을 꽃피웠다. 얀 바터링크(Jan Waterink), 코르넬리우스 야르스마(Cornelius Jaarsma), 해로 반 브루멜렌(Harro Van Brummelen) 등의 개혁주의 교육학자들은 개혁주의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의 사상을 개혁주의 교육학으로 발전시켰다. 개혁주의 신학과 철학과 교육학은 성경에 기반한 칼빈의 창조론을 더욱 풍성하게 발전시켜 왔기에 창조과학을 위한 충분한 신학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혁주의 사상은 성경적 정체성 위에서 새로운 개혁을 위해 열려 있는 자세로 더욱 정합적인 이론을 추구하기에 창조과학적 논의를 위한 신학적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개혁주의자들은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에 따라 성경적 관점에 철저히하고자 하며, 개혁주의 세계관은 창조-타락-구속-완성의 카테고리를 창조세계 전체에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sup>43</sup> 개혁주의 신학과 철학과 교육학은 창조과학의 ‘신학적 과학’으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창조과학회는 과학적 전문성을 가진 1,3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규모가 큰 기독교 단체이다. 한국창조과학회는 기원과학과 무신론적 진화론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기독교적 관점에서 과학적 전문성을 가지고 답할 수 있는 단체이다. 앞으로 창조과학은 기독교공동체를 대변할 수 있는 ‘신학적 과학’으로 발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21세기 과학의 시대에 더욱 설득력 있는 창조에 대한 변증과 기독교 창조론의 발전에 창조과학과 창조과학교육이

---

*Gereformeerde Dogmatiek*, trans., John Vriend, *Reformed Dogmatics*, volume 2 (Michigan: Baker Academic, 1918).

42 도예베르트에 따르면, 하나님은 창조의 법 수여자로 모든 피조물을 그 법칙 아래에 두며, 전체 우주는 창조의 법에 종속되어 창조주에게 순종하고 있다. 도예베르트는 이 창조의 법을 하나님과 우주 사이를 구분 짓는 경계로 보았다. 그는 창조의 법에 속한 현실의 영역을 15가지 양상(수적, 공간적, 운동적, 물리적, 생명적, 심리적, 분석적, 역사적, 언어적,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법적, 윤리적, 신앙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각 양상이 다른 양상들과는 독립적인 고유의 법칙들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모든 양상은 상호의존적이며 융합적인 관계 가운데 있기에 현실의 실재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다. Herman Dooyeweerd, *A New Critique of Theoretical Thought*, 김기찬 역, 『이론적 사유의 신비판』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5).

43 조성국, 『기독교학교 교육의 역사와 철학』 (서울: 생명의 양식, 2019), 25.

감당해야 할 몫이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Bavinck, Herman. *Christelijke Wereldbeschouwing*. 김경필 역. 『기독교 세계관』. 군포: 다함, 2019.
- \_\_\_\_\_. *Gereformeerde Dogmatiek*. Translated by John Vriend. *Reformed Dogmatics*. vol 2. Michigan: Baker Academic, 1918.
- \_\_\_\_\_. *Philosophy of Revelation*. 박재은 역. 『계시 철학』. 군포: 다함, 2018.
- Dooyeweerd, Herman. *A New Critique of Theoretical Thought*. 김기찬 역, 『이론적 사유의 신비판』.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5.
- Spier, J. M.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Philosophy*. New Jersey: The Craig Press, 1979.
- Schreiner, Susan. *The Theater of His Glory*. Michigan: Baker Books, 1995.
- Wolters, Albert M. *Creation Regained*. 양성만·홍병룡 역. 『창조 타락 구속』. 서울: IVP, 2007.
- 김기석. “과학과 종교의 대화: 빅뱅 우주론과 창조신앙”. 『조직신학 논총』 제10집 (2004)
- 김명용. 『과학시대의 창조론』. 서울: 온신학회출판부, 2020.
- 김병훈·한윤봉. 『성경적 창조론이 답이다』.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19.
- 김정형. “과학적 무신론의 도전과 창조론의 미래”. 『선교와 신학』 48 (2019).
- 김영길·조덕영. “한국에서의 창조론 운동의 회고와 전망”. 『창조』 제100호 (1996).
- 김영애. “한국창조과학회 40년의 시작”. 『창조』 제207호 (2021).
- 장슬기 외 3인. 『창조론 탐구학습』. 서울: 좋은씨앗, 2010.
- 조덕영. “종교사회학 관점에서 바라본 창조과학”. 한국종교사회학회 학술대회 (2018).
- 조성국. 『기독교학교 교육의 역사와 철학』. 서울: 생명의 양식, 2019.
- 조성국·이현민. 『기독교 세계관과 교육이론』. 서울: 생명의 양식, 2021.
- 양승훈. “양승훈 한국창조과학회 떠난 4가지 이유”. (www.newsm.com).
- \_\_\_\_\_. “창조론 교육,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교육교회』(1993. 6).
- \_\_\_\_\_. 『대폭발과 우주의 창조』. 서울: SFC출판부, 2016.

- \_\_\_\_\_. 『창조에서 홍수까지』. 서울: 도서출판 CUP, 2014.
- 윤철민. 『개혁신학 Vs 창조과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8.
- 이경직. “기독교 세계관과 창조과학”. 『신앙과 학문』 제11권 2호 (2006).
- 이신열. 『종교개혁과 과학』. 서울: SFC 출판부, 2016.
- \_\_\_\_\_. 『창조와 섭리』. 부산: 고신대학교 출판부, 2020.
- 이윤석. “한국의 창조론 논의 현황”. 『창조론 오픈 포럼』 14/1 (2020).
- 임번삼. “한국창조과학운동의 태동”. (사)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str.or.kr) 임번삼 칼럼. (2018).
- 네이버 지식백과(www.naver.com, 지질학백과).
- 한국창조과학회 홈페이지(www.creation.kr), (2022년 2월 15일 접속).

**[Abstract]****Analysis of Creation Science Education of Korea  
Association for Creation Research**

Kwang Hyun Park

(Hyoam High School, English Lecture, Christian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reation science education of Korea Association for Creation Research(KACR). KACR was founded in 1981 with the help of Henry M. Morris who established 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ICR) in the USA. During the last 40 years, KACR has done a lot of things for Korean churches, Christians, and the society. KACR has about 1,300 members and most of them are scientists and professors. This is the reason why KACR focuses on creation science education for next generation and church members to formulate faith for the Creator, God. KACR has tried to form creation faith, to defense creation against evolution, to teach creation in public education, to make science educational books and materials, to develop scientific research from the perspective of creation, to suggest the Good News through science with various educational activities of creation science.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ducational activities of KACR from the perspective of Reformed Christian education. First of all, we will survey the background and history of KACR. After then, we will analyze the meaning of 'creation' and 'science' from the creation science education of KACR.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 we can find the educational aims, purposes, contents and methods of KACR. Lastly, we will discuss the meanings of

creation science education of KACR. This study focuses on the educational meanings and values of creation science education of KACR from the perspective of Reformed Christian education.

**Key Words:** KACR, creation, science, education, evolution, creation faith